

전남교육청, '과학·수학교육 연구개발' 성과발표회 성료

과학·수학 융합 교육 연구회 18팀 운영 성과 공유 위해 마련 AI에듀테크 활용·디지털 대전환 미래교육 적용 방안 논의해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나주 듀플렉스호텔에서 과학·수학교육 연구개발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2023년 과학·수학 융합 교육 연구회 18팀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는 체험탐구중심 과학·수학 문화와 관련 정책을 현장에 안착·확산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전남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과학·수학 교원의 공동 연구 지원과 전문성 신장, 융합 교수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 10개 팀, 수학 8개 팀을 선정 지원했다. 이날 발표회는 이들의 활동 성과를 나누기 위한 행사로 전시와 발표 2

개 섹션으로 진행됐다.

과학 분야에서는 △ 현장중심형 메타버스 및 첨단과학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 △ AI 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방법개선 △ 디지털 대전환 과학과 미래교육 적용 방안 등 총 10개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수학 분야에서는 △ 손으로 만지고 생각을 키우는 초등 놀이수학 동아리 지도 자료 개발 △ AI튜터와 교사의 수학수업 협업 모델 개발 △ 진도·영암·광양·순천 명소를 배경으로 한 융합형 Math-tour 자료 개발 연구 결과 등 8개의 연구 주제 성과를 나눴다.

각 분과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결과물 전시

물을 토대로 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회를 주관한 화순동복중 한 교사는 "중등 교사지만, 초등 분야의 연구 주제도 상당히 흥미로워서 중학교 소규모 학급 단위에 재구성해 적용해 보고 싶다"며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박준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성과발표회가 다양한 창의융합형 개발 자료 현장 확산을 지원하고 전남 과학·수학 기반 창의융합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2024년에도 현장의 확산과 심도 있는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행정적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영암교육청, Green 실천 환경교육 나눔의 날 운영 실시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호텔현대대비아라

관내 초·중 환경교육 담당교사 대상

한에서 관내 초·중 환경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2023. Green 실천 환경교육 나눔의 날'을 운영했다.

역점사업으로 환경교육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영암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에서 1부 관내 초·중학교의 환경교육 활동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고, 2부 '융복합 환경교육 운영 사례'라는 주제로 목포덕인고등학교 이명희 선생님의 강의와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

활용품을 활용한 반려식물 수경재배 및 급수 장치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환경분야의 진로·직업 체험과 직업교육을 병행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사례와 성과를 공유했고, 나아가 2024학년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 남악고, 교육활동 평가 나눔의 날 운영



무안 남악고등학교는 지난 7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 시청각실에서 "교육활동 평가 나눔의 날" 행사를 운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2024학년

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주요 교육 활동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2024학년도에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주제를 교직원 사전 설문을 통해 정한 후 주제별로 분임을 정하여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의 주제로는 2024학년도 1, 2학년 공간 시간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학생의 학교 규칙 준수를 위한 학생 자치 활성화 방안 등 7개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논의된 주제들은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 다압초-다압중, 전남 작은학교 교육박람회 운영

작은학교의 꿈이 자라나고 실현되는 체험형 행사 성료

광양시 다압초등학교-광양다압중학교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전남 작은학교 교육박람회(이하 작은학교 박람회)'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번 작은학교 박람회는 전남 작은학교 홍보를 통해 전남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타시도 지역 학생 유치를 통해 작은학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남 관내 22개 교육지원청 소속 초·중등학교 및 본청 대전환 주제관 등의 총 80여개 체험·전시 부스의 축제의 마당이 되었다. 광양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다압초-광양다압중은 특색있는 교육과정 흥

보, 지역특산품인 매일의 시음, 퍼스트 레고 AI 체험, 섬진강 두꺼비 보호를 위한 버튼만들기 등의 작은 학교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주요 관람객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광주광역시 학부모로서 '다압초-중'의 마을교육과정과 진로체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섬진강과 매화마을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초·중학교가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역량 중심의 교육, 지역과 공생하는 함께 여는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을 체험하며 작지만 강한 다압초-광양다압중을 응원하였다.



정중구 교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작은 학교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한다고 있다는 것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라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 노동초, 장터 열어 사랑 나눔 실천

보성 노동초등학교는 지난 8일 나눔 장터를 열어 이웃에게 따뜻한 기부를 실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다모임 활동을 통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장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나눔 장터에서는 두레별 각 부스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만들었다. 평소 다모임이 활성화된 노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기부 물품 판매, 놀이 체험, 즉석 사진 판매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날 장터에는 학부모, 교직원도 함께 부스를 운영하고 참여하여 교육공동체가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터 수익금은 노동면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보성=김덕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